

# 함께

여름 2013

▪ 특집 ▪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 COVER STORY

와~ 공이 제멋대로 가네  
 대책 없는 공,  
 혼자 굴리는 것보다  
 둘이 굴리면 제대로 가고,  
 둘이 굴리는 것보다  
 셋이 굴리면 더욱 제대로 가는  
 대책 있는 공,  
 함께하면  
 무엇이든 함께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하나님 가르침

## 2013 여름 Summer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 신앙 생활에서의 기도 이야기 10
  - 기도를 통한 내 삶의 변화 14
  - 우리 교회 중보기도 이야기 18
  - 기도를 위한 기도 서적 22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목장 탐방 24
  - 지금 선교지에서는 28
  - 곳은 일 마다 앓는 장례부 32
  - 할렐루야 성가대 3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대전대학교 CCC 40

가양2동 탁구동호회 44

친구의 친구는 친구 48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54

나의 삶 나의 신앙 56

사모의 글 60

이런 일 저런 일 62

내 숨씨 우리 가족 67



함께10호\_2013 여름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신신혜, 차문현, 박현정

디자인 | 박나래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http://www.jungbu.or.kr)

# 인忍 ▶인仁 ▶인人

글 · 조상용 담임목사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 : 17~19

한 목공이 산에 가서 통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 선반 위에 통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톱으로 썰고, 대패로 깎고, 망치로 때렸습니다. 통나무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공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욧!”

그때 목공이 대답했습니다. “통나무야, 나는 지금 너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다듬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통나무일 뿐이란다.”

하나님은 목공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솜씨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훌륭한 작품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고





난의 중요성입니다. 그의 성공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일곱 살의 요셉을 <고난>의 연장을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다듬어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하는 것은 인생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련”이란 단어로 물음에 답합니다. 이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철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단금질을 거쳐 훌륭한 연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내신 다음,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단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참을 인(忍)자를 배우고, 나아가 어질 인(仁)자를 익히고, 비로소 사람 인(人)자를 터득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 그늘 만들기

홍수희

8월의 땡볕  
아래에 서면  
내가 가진 그늘이  
너무 작았네  
  
손바닥 하나로  
하늘 가리고  
애써 이글대는  
태양을 보면  
홀로 선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벗이여,  
이리 오세요  
홀로 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 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 가듯  
우리도 손각지를  
끼워봅시다

네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네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벗이여,  
우리도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 갑시다





**홍수희** 시인은

1995년 문예지 한국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다. 제2회 이육사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달력 속의 노을〉 등의 시집이 있다.



| 특집 |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글 · 편집부

기도, 안개와 같고 무지개와 같은 기도.  
기도, 무거운 짐과 같고 자유의 통로 같은 기도.  
기도, 뜨겁고 아픈 눈물과 같고 환희의 아침햇살 같은 기도.

우리 교회가 2만 시간 기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도에 무슨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면 시간도 필요하고 의무도 필요했습니다.  
기도도 훈련되지 않으면, 습관처럼 일상이 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답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중보기도팀은 숨겨진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좀 더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읽어볼 만한 책은 무엇인지?

이제 기도에 대한 좋은 시간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신앙생활에서의 기도이야기

글 · 정영훈 강도사(늘푸른 청년회)



나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 글이 유독 기도대장들이 많은 대전중부교회에서 기도대장들을 위한 ‘기도의 정석’이 아닌, 나 같은 목회 초년생이 하루하루 기도하며 사역할 때 느끼고 깨닫게 된 일상 생활 가운데 기도의 이야기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고자 함을 먼저 알리고자 한다.

## 하나, 기도 꼭 자세부터 잡아야 하나?

어릴 적 TV에서 방영하는 외화를 보면 가끔 내 또래의 금발머리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에 폭신포신해 보이는 하얀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했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눈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 나는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년시절 유치부



에서 기도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눈을 감는 것이었다. 그 시절 나는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이라도 내리실 것 같은 위협 아닌 위협을 극복하려고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며 눈을 있는 힘껏 꼭 감고 기도를 했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아이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하니 그 모습은 나에게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다.

그럼 기도 할 때는 반드시 자세부터 잡아야 할까?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릎을 꿇는 기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드리는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드리는 기도, 벽을 마주보며 드리는 기도 등 다양한 모습의 기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모습의 기도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나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물으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한다. 옳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렘 33 : 3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대화의 통로를 분명 기도로 열어 놓으





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도의 모습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던 아담의 모습이 아닐까? 그때 아담이 온갖 인상을 다 쓰며 눈을 힘껏 감고 대화했을까? 아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다시 말해 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은 것이 바로 아담이었고 우리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대화를 단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보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되어야 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체가 하



---

나눔과의 대화 즉,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 둘, 기도는 말씀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성령 충만’을 외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은 오직 성령 충만 할 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의 체험도 기도의 전무함으로 주어졌다. 근데 이 기도에게는 떨어트릴 수 없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잠언 29:18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여지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는 새가족부를 담당하며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중매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화를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대다수의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도능력 받았다고 설쳐대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불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 볼 때 더불어 기도해야 한다.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 기도와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매일의 삶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 다시 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글 · 안장현 집사



내가 다시 기도의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미자립 교회 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합부흥성회 때입니다. 강사로 오신 일본 오사가 유니온 장로교회 이병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집회들..., 그때마다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으나, 크게 마음에 와 닿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은혜인지 첫째 날부터 마음에 감동이 넘

쳐흘렀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만에 맛보는 꿀송이 같은 집회였습니다. 이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대에 배만 나오고, 목요영성 집회는 마치 못해 가거나, 시간이 되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요일 날은 일절 다른 약속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부흥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힘들어 하던 기도가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셋째는 제 아내 집사의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약 먹으면 그때만 좋아지고 끊으면 다시 반복되어 힘들었는데,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특별 새벽 예배를 한번도 안 빠지고, 14일 동안 개근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특히 아내보다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침잠이 많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전 처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완주하였습니다. 제5기 중보 기도학교도 수료하여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성숙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 내 속에 감추어진 기도를 꺼내면...

글 · 정학순 성도



요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한다.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이다. 새로운 날과 기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도록 간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드라마 대신 기독교방송을 듣고, 운영하는 미용실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전해지는 방송을 틀어 놓고 듣는다.

하지만, 늘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를 알고 다녔지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다. 모진 시련과 고난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원망을 토로하는 상대였고, 좀 더 많은 행복을 주지 않으신 분,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지 않으신 분,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고단하게 살게 하신 분이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부정적이고 한숨 섞인 말뿐이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특히 올해 목에 세균이 침투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다.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싶지 않았다. 보다 의미 있게 살고 싶었고, 원망뿐인 신앙에서 기쁨과 긍정의 신앙을 체험하고 싶었다. 원망과 부정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참된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니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그리고 기도했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 세상은 밝고 아름다우며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했던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나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의 예수님 영접, 손자 손녀들의 주일학교 출석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또한 나와 내 가족에 머물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기도를 회개와 눈물로 꺼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글 · 국민정(늘푸른청년회)



저는 고2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QT와 말씀을 통해 경건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체성과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에 접어들고 세상적인 유혹들로부터 저는 다시 낙담해져 갔습니다. 그 때 대학에서 CCC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기복신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에 알 수 없는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엄마께서 기도의 부족함을 일깨워주셨고 저는 교회의 기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 기도실을 이용하며 기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버거웠던 기도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며 저의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품었던 의료선교의 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의 이런 비전을 두고 계속된 기도 끝에 간호학과로의 편입을 생각하게 되며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위해 휴학을 했지만 나의 상황과 또한 간호학과로의 편입은 현실의 벽이 높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쉬지 않으면 안되듯 기도 또한 멈추면 안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제 안의 갈급함을 잠깐 잠깐 채우고,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았더라면 저는 저의 꿈보다는 일상적인 취업과 결혼을 걱정하며 삶의 중심이 세상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의 30분, 1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했을 때 저는 다시 꿈을 꾸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며 바뀐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 우리들의 영원하신 짱!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글 · 한지성(초등부, 5학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너무 좋아요.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설교시간에 듣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아요. 저랑 제일 친한 박정현을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믿

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제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실거라 말이에요.

참! 저번에요.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거예요. 수업시간이 다 끝날 때 짬예요. 비를 맞고 집에 가겠구나 생각하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비를 멈추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수업이 끝났는데 그 때 비도 멈춘거예요.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거잖아요. 정말 멋진 예수님 짱이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축농증이 심해서 입으로 숨을 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기도 다음으로 찬양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찬양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다섯 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제가 진심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작지만 세상에 퍼져나가서 빛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신 하나님 사랑~낮은자를 높혀주시고~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며 목청껏 부르는 지성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느꼈다.

#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

글 · 김영화 전도사(1교구)



##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중보기도실

위에서 도고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고라는 말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즉 intercession 이란 틈, 사이, 간격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정의할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상용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 첫째로 하신 사역도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사역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보기도학교가 있습니다. 6주 과정으로 진행 되는데 기도학교에서는 체계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기도학교를 수료 하게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아 기도를 경험하며 훈련하는 시간

기도의 방법으로는 예배기도(주일예배와 목사님을 위하여), 등불기도(선교와 교회와 개인을 위하여), 화요기도(성도들의 중보를 위하여), 목요영성기도(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목요철야기도(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119기도(급한 기도제목을 핸드폰 문자로 받아서), 릴레이기도(교회), 이만시간기도(개인)가 있으며 각 방법마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요영성기도회는 담임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 강력한 은혜의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하고 영적인 회복으로 인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며 영적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고 기도자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며

화요기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50여명의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카드에 적어 제출한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며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 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시작 할 때 준비단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이며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부흥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트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 :19

# 『사권의 기도』

## 기도의 본질을 향한 가슴벅찬 여정을 시작하라!

책 소개 · 편집부    저자 · 김영봉 목사(출판사: MP)

누군가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 몇 권이 떠오릅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E. M. 바운즈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잘 정리해놓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달라스 월라드의 명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겪는 중에 읽으며 위로를 받았던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등등..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 책, 김영봉 목사님의 ‘사권의 기도’를 추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만큼 쉽게 쓰여졌으면서, 또한 한국의 기도에 대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는 한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서론은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할 수 없고 공허했던 그 사람. 어쩌면 오래도록 ‘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나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영성이 필요했다. 그에게 종교는 있었지만 영성이 없었다.” 만약 이 말에 공감한다면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투쟁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 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히려 기도라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자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귀에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 131편의 ‘어미 품에 안긴 젖 떼 아이’의 모습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만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하나님과의 사귀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니고데모와 같은 목마름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더욱 전투적으로 기도에 임할 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도라는 부담감에 짓눌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귀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굴복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책 ‘사귀의 기도’는 1부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먼저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기도의 마음가짐을, 3부에서는 감사/찬양기도, 회개기도, 청원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라는 큰 골격을 잡아줍니다. 이어 4부에서는 그 골격 안에서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 – 침묵기도, 묵상기도, 금식기도, 기도문기도, 단문기도, 기도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 초보자부터 오랜 기간 기도를 하면서도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는 성도들까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오히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이자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의 기도를 향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기 원합니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목장탐방

# 레포츠로 돈독해지는 형제들, 남 3-5목장

글 · 류창선 집사(목자)



남 3-5목장을 생각하면 행운이 가득한 목장, 행복할 수 밖에 없는 목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목장의 목자라는 직분은 참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위치인데 여러모로 부족한 나에게 남3-5목장은 그야말로 ‘넉쿨째 굴러온 복덩어리 목장’이다. 많은 목원들이 교회 각 기관과 각종 봉사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목장이다,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여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앙에 대한 나눔은 물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장을 중부교회의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언제 보아도,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참 든든한 목원들이다.

우리 목원들은 사진에 소개 된 8분 외에도 근무지를 남원에서 대전으로 옮기게 되어 앞으로의 동참이 기대되는 정봉진 집사와 여러 여건상 참석이 어려우신 몇 분이 더 계신데 앞으로 열 명 이상의 목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동거하며, 예배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목장이 되기를 늘 간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김상희 집사의 사무실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여자들 못지 않은 수다로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지만, 좀 더 많은 동참을 위해 요사이 모임의 형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4월의 공백기를 지나 5월에 모임이 재개되었지만 참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단합대회 명목으로 2부 순서를 당구 모임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그동안 정적이고 정제되었던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면서 모임에 활기가 생겼다. 또한 평소에도 의견을 나누거나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목원들이었지만, 더욱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대 이상의 호응에 힘입어 당분간은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산 등 좀 더 다양한 레포츠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새로운 변화를 즐겨워하는 목원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삶과 말씀, 풍성하고 다양한 교제가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고,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우리 목장을 기대해 본다.



## 남 3-5 목원들을 소개합니다~



넓은 경험과 상식으로 목장의  
감초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목장의 만형

**김상희 집사**

너털웃음으로 늘 싱글벙글 웃어주는  
온화한 성품, 살롬의 전도사

**임춘화 집사**



자상한 가장으로서 모든 목자들에게  
본이 되는 딸바라기

**안성현 집사**



알면 알수록 은근한 재미가 있는  
IT의 강자, 성실함의 지존

**유영삼 집사**





함께하는 이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문학소년

**심재성 집사**

다재다능한 달란트에 지적 수준까지  
뛰어난(한계가 없음) 브레인

**한일민 집사**



최근 불타는 학구열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꿈돌이이자 든든한 동역자인 예비목자

**김태영 집사**



키가 커서 싱겁고 덜렁 덜 것 같지만  
할 일은 기필코 완수하는 목자

**류창선 집사**





# 북한선교와 통일을 바라보며

글 · 정갈렙 선교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 : 19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통일의 희망을 말해주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새 일이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교적 측면과 통일 운동적 고찰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죄악과 우상숭배와 증오와 절망 속에서 광야의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선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사명의 일환으로 지구촌의 땅 끝이라 불리우는 저 북한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과 5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남한 각지에서 복음전파와 구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기독교인 인구가 국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에 교회가 무관심하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 사건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사안일 경우, 교회의 역할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꺾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

들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으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인식 하에 민족구원의 차원에서 북한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간접선교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현 단계에서의 북한선교의 당면과제는 남한의 기독교계 인사들의 북한방문을 활용한 선교, 해외교포를 통한 방문선교, 탈북자를 통한 선교, 방송을 통한 선교, 전도지와 신앙서적 등 문서를 통한 선교 등이다.

한국교회는 될 수 있는 한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경수로 건설 지원이나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도 간과할 수 없는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북한은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사소한 접촉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부족한 중을 통해 하나님은 10여년 전부터 북한에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등 전문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전문인 선교

현재 북한의 모처에 생산 공장을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북한내 생산시설 및 기반시설 확보

- 북한지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공장 운영  
: 북한 내에 안정적인 사역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안정적인 지위 확보  
: 이를 통해 자유롭게 북한 출입 가능

#### 2. 중국내 생산시설 및 기반시설 확보

- 중국 동북지역의 콩과 유기농업을 이용한 가공 산업을 일으켜 지역사회 기여 및 선교
- 복음 전파 및 양육,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지도자 양성, 파송
- 지난 겨울 추위로 중단되었던 시설 보수 및 일정 진행
- 중국내 제자 그룹을 전문인 사역자로 한 주간 일하며 주말에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설교 등) 양육





1



2



3



4

- 1 나진·선봉 지구의 남산 유치원에 백미를 기증
- 2 두유를 가공해서 유치원·탁아소에 간식으로 사용
- 3 학생들의 등교시간
- 4 18개 지역의 문방구점을 통해 비즈니스 선교 활동

### 3. 중국내 압록강 유역 사역을 위한 프로젝트 가동

- GMS내에 압록강팀 사역을 위한 신의주 프로젝트 진행
- 중국 내에 우선 공장 및 생산 시설을 건립
- 향후 신의주에 생산 시설 및 기반 조성 계획

### 4. 북한 선교의 전문인 사역 및 비즈니스 미션 한국 본부장 임명

- 북한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기능 감당
- 한국내 자원 네트워크 총 책임
- GMS한국외국인사역지부 북한선교팀장으로 오는 5월 포럼 및 네트워크 책임

### 5. 기타 전문인 선교훈련원 및 비즈니스 미션 강의사역

- CBMC지도목사로 강의 사역
- LMTC등에서 전문인 선교훈련원 및 비즈니스 미션사역 강의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때론 선교현장에서 겪은 잊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서글픔으로 가슴을 움켜쥐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를 북한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겸손한 순종으로 한 걸음씩 달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대전증부교회 동역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한 가족으로 받아 주시며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할 것이지만 결코 저의 힘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늘 아버지의 열심 안에서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소중한 하늘나라 동역자들의 함께 거두는 소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한국과 북한을 오가는 중을 비롯해 현장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한국 내 1명과 중국, 북한 내 3명 , 그리고 가족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안위하여 지켜주옵소서.
2. 공장가동에 필요한 거래처 및 재정적 지원을 허락하옵소서
3. 복음전하는 중교 MP3 및 작은 성경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모두가 장례부원이라는 마음으로!

글 · 심재성 기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喪)을 당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와 곳은일을 마다않고 도와주는 지체가 있다. 어느 부서처럼 교회생활 중에 늘 마주할 수 있는 지체가 아니기에 우리는 어쩌면 종종 그 존재조차 잊고 지내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항시 대기한 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체, 바로 장례부가 여기 있다. 장례부를 취재하기 위해 장례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영학 집사님을 필그림 카페에서 만났다.

**Q. 장례부에 속한 임원들과 부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A.** 부장인 나와 총무인 박태식 집사님, 회계인 김종현 집사님 이렇게 임원이 셋이고 부원은 없어요.

**Q. 아니 왜 부원이 없으세요?**

**A.** 장례부 일은 성격상 정기적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원이 많이 필요도 없거니와 일을 당했을 때 그 때 그 때 위원들을 섭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부 임원, 왼쪽부터 이영학 집사(부장), 박태식 집사(총무), 김종현 집사(회계)

**Q. 그러면 섭외는 잘 되나요?**

**A.** 장례부 일을 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장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운구하는 일인데 운구 위원이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임원 셋 빼고 나머지 운구 위원을 섭외하려면 교회 요람을 펼쳐놓고 1시간은 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해요. 우선은 안수집사님을 시작으로 하실 만한 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한 20명 넘게 전화했는데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화를 건 제가 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때 그 때 어려운 사정 속에도 참여해주시는 운구 위원들에게 어찌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Q.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장례부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A.** 우선 교인 중에 상(喪)을 당하시게 되면 가족에게 교회장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장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장례부가 상주와 협의해서 예배며 발인식, 하관식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비석이나 포크레인,



교회 묘지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에서 대둔산 가는 방향에 있다. 교회 묘지 올라가는 길에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고, 신앙의 선조들이 잘 정리된 묘역에 계신다.

잔디 등을 계약하고 장비 등을 준비하죠. 특히 교회동산에 고인을 모시게 될 경우에는 모든 일정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비용은 상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Q. 교회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A.** 네, 교회동산은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교회 묘지인데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등록된 출석교인이나 직계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80기 이상이 모셔져 있고요. 여름철 벌초라든가, 진입로 작업 등도 저희 장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Q. 애로사항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건가요?**

**A.**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을 당했을 때 운구 위원을 소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힘이 듭니다. 또 어렵게 소집된 운구 위원들도 고생이죠. 교회동산에 모실 때 400미터 이상을 운구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라도 내린 날에는 길도 미끄럽고 어렵죠. 대개



추운 겨울에 초상이 많이 나다 보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이 동시에 나는 경우 정신없고 힘들죠. 지난 1월과 2월 사이엔 7건의 상이 나 일주일 이상 개인 일을 놓고 장례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Q. 장례부 위원들은 금전적 손해도 보시겠네요.**

**A.** 그렇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죠. 이렇게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장례 위원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모시게 되고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매번 하던 분들만 해야 해 불만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예정이 없는 일이다 보니 더욱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장례부원들은 우리 교회의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오래 오래 사시길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게 된답니다. 하하.

**Q. 끝으로 교회 성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A.** 네, 장례부 일이 쉽지는 않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장례부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많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일을 하는 동안 격려해주는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나 임원들이 장례부에 속해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만이 장례부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장례부원이고 운구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장례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장례식을 보면 성도님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떤 때는 운구 위원 6명을 다 못 채워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이 장례부원이라는 마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건 안 띄건 묵묵히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덕에 우리들은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음을 본다. 여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장례부가 그런 지체의 하나이다. 이영학 집사님의 당부대로 모든 교우들이 장례부원이란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 그 어떤 일이든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본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할렐루야 성가대

# 감사꺼리! 자랑꺼리! 할렐루야 찬양대

글 · 이상우 집사(할렐루야 찬양대장)



할렐루야 찬양대를 생각하면 우선 감사할 것과 자랑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선 감사할 것 몇 가지를 먼저 소개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 사이즈의 반 밖에 안 되는 유아용 의자를, 그것도 선교원 원감님의 눈총을 받아가며 연습시간에 맞춰 내렸다 올렸다 하며 사용했는가 하면, 무거운 철제 접이식 의자를 매주 기계실에 넣었다 내놓았다 하면서 더운 여름에 땀 꽤나 흘렸던 기억이 난다. 교회 리모델링 이후 찬양대 지정 연습실을 가진 지금 이 모든 여건을 한 번에 해결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용 연습실을 가지다보니 차, 커피, 다과 등 항상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는 임원진, 때마다 제주도 밀감을 보내주시는 지휘자님, 요즘 웬지 찬양대 분위기 다운됐다고 과일 박스 보내 주시는 안수집사님, 지난주 찬양 은혜 받았다고 드링크 보내주시는 장로님, 외국 다녀 오시며 캔디 초콜릿 사오시는 권사님, 가끔 코스트코 비스킷 사다 주시는 파트장님 등등 모든 것이 감사꺼리이다.

70여명의 성실한 대원으로 구성된 할렐루야 찬양대는 먼저 장지이 지휘자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내 교회처럼 열심히 교회와 찬양대를 섬기며, 결혼으로 새 가정을 꾸려 남편은 자동으로 전도되었고, 독일 유학으로 쌓은 엄청난 실력과 내공으로 전혀 티나지 않게 찬양 대원들을 지도하며 열정을 쏟아 부어, 우리 찬양대는 실로 2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남성중창단까지 지도하게 되었다.

또한 소프라노 솔리스트 겸 부 반주자 힐링 보이스 강지혜 자매, 결혼 후에도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피아노 반주자로 수고해주는 석사 반주자 주희경 자매, 네 식구 모두 우리교회에 등록하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오르간 반주자 김은주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함께지 편집장, 목자, 예비목자, 원로장로, 재정위원장, 남·여전도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등등 신앙의 연륜과 무게가 느껴지는 중직. 중책을 1~2개 이상 맡으시면서도 개근하시는 많은 대원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우리 찬양대는 20대 청년부터 70대 장로님까지 모든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양대 내에 남성중창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로 보나 파트별 인원으로 보나 균형이 잘 잡힌 공동체이다. 연습시간 또한 예배 전 1시간 예배 후 2시간 거의 전 대원이 참여하는 성실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2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된 소프라노 파트는 그 우렁찬 소리 때문에 지휘자도 가끔 “깜놀”할 정도의 볼륨을 자랑하며, 파트장 서정자 집사님의 리드 아래 찬양대의 중심 파트인 것이 자랑이며, 육정순 집사님이 파트장으로 리드하는 앨토는 파트 연습이 거의 필요 없는 절대 음감의 프로들의 집단인 것이 자랑이고, 테너는 파트

장 윤종명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평균 참석 대원이 두 자리 수에 육박하게 된 절대고음의 고수들이나 것이 자랑이고, 심재성 집사님이 파트장인 베이스는 매주 12명 정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찬양대의 밑받침, 고음 불가 실력자들의 집합이 자랑이다.

매일 페이스북에 성경말씀 한 구절씩 올려 주시며, 찬양대의 모든 곳은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도맡아 주시는 선한 미소가 매력적인 류창선 총무님 부부, 1인 3역을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회계 윤옥 집사님, 매주 예쁜 따님과 함께 까운을 정리해 주시는 이윤성 부장님, 2030회장을 역임한 숨은 실력자 김태영 악보부장님,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현악팀의 현성주 팀장 등 모든 임원들의 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축복으로 준비해 주시겠지요?

이 모든 감사와 자랑끼리를 가지고 있는 찬양대장인 나는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다.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가 많고,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한다. 교회 내 인원이 가장 많은 목장 같은 찬양대이지만, 가장 겸손하고 낮은, 항상 칭찬 듣는, 타 기관에 귀감이 되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목장으로 꾸며가고 싶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시 59:17)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이다.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한 선한 청지기와의 같은 많은 대원님들도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한다.



# 이웃에 나-라, 빛을 발-하-라

글 · 차문현 기자





누가 그분을 떠나서  
즐거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대학에 입학했으나 정작 꿈이 없는 사람.

용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과 공부 이외의 것들은 모두 포기해야하는 사람.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쉽게 사랑한다 말하고, 쉽게 그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

사람들과 놀 때는 한없이 즐겁다가도 홀로 남겨지면 외로워하는 사람.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 받았지만, 상처도 선물 받았다. 상처 없는 청춘이 없는 것 같다. '청춘예찬'이라는 말이 구슬프게 들리는 요즘이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어느 언덕에 자리 잡은 대전대학교에도 이렇게 가슴 아픈 청춘들이 많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하며, 오직 하나뿐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아픔의 완치는 불가능하다. 대전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앓고 있는 청춘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전대 CCC의 학생 대표를 섬기고 있는 조은현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 그 곳을 짧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 대전대 씨씨씨는

서로가 다른 점이 많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사역하는 공동체이다. 간사님(캠퍼스선교사) 1명, 대표단 6명, 순장 및 순원들 40여명이 함께 하며 동아리방은 대전대 혜화문화관 지하1층에 위치해 있다.

### 무엇을 하나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매주 월요일 6시20분부터 8시까지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정기 모임을 통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하루하루를 예배 드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8시50분까지 QT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모이기에 힘쓴다. 순장들과 순원들이 매주에 한 번 씩 순모임이라는 말씀공부와 교제



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대전제일교회에 대전의 13개 캠퍼스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채플을 드리고 있다.

버라이어티한 기쁨들이 너무 많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FC샬롬이라는 축구팀으로 같이 축구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고, 매 학기마다 순여행이 있고, LTC(사영리전도와 제자화 교육), 여름수련회, 금식수련회, 해외 단기선교 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 비전은

대전대 CCC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구호로 나아가고 있다. 이 구호처럼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대 CCC안에서 30명의 순장을 세워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CCC 여름수련회에도 CCC 지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지체들을 비롯해 많은 지체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은현 형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은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대표로 섬기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대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께서 CCC에 번호를 넘기시는 바람에 낯인 듯 들어왔지만, 씨씨씨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감사를 배우며 소중한 공동체를 선물 받은 형제가 오히려 더 큰 것을 낚은 것 같다. CCC에서의 시간들을 제외한 대학생생활을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한 형제의 말처럼, CCC의 많은 지체들이 누린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 가양2동 탁구동호회 건강도 우정도 똑, 딱, 똑, 딱

글 · 박현정 기자



주5일제의 확대 실시로 인해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생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낯이 관심과 인기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무엇이 있을까 찾던 중에 가양2동 탁구동호회를 알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요즘 TV 속 유명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과 동호회 일반인들과의 탁구 대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만큼 탁구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생활체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이웃들이 참여하고 있는 탁구 동호회를 취재하기로 결정하고, 과연 우리 동네 탁구 마니아들이 모여 있다는 가양2동 탁구 동호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가양2동 동사무소로 찾아가 보았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강당에서 탁구를 치고 계시는 분들은 10명 정도나 되셨다. 40대의 여성분부터 70을 넘기신 할아버지까지 그 연령 또한 다양했다. 작은 강당은 여기저기서 서브를 넣으며 나오는 기합소리와 열기로 가득했다.

가양2동 탁구 동호회 활동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자유롭게 가양2동 동사무소 3층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회원 가입 후 각자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탁구를 칠 수 있고, 강사에게 약간의 코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원하면 레슨비를 내고 전문적인 개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는 테이블 사이로 잠깐 쉬고 계신 동호회 운종각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회장님께 동호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더불어 동호회 자랑을 들어보았다.

“오늘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동호회 회원들이 많으시고 또 열심이신데요. 회원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한 3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은데요. 이렇게 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운영 하시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인원은 많은데 탁구대가 3대 밖에 없어서 대기시간이 좀 긴 점이 아쉽네요.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동호회 회원들은 탁구 치는데 필요한 소모품만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탁구 동호회 활동 하는 게 회장님한테는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이 어울리면서 재미를 느끼고 즐기는데서 삶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가양2동에 이런 탁구 동호회가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동호회에 들어오고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초대 의미에서 자랑 한 말씀 해주세요”

“가양2동 탁구 동호회가 다른 동호회보다 좋은 점은 무엇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든지 실력에 맞게 배울 수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 마시고 동호회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구를 좋아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가양2동 탁구 동호회는 여가 생활과 더불어 운동을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탁구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몰랐던 이웃, 혹은 실력은 있는데 뽐낼 곳이 필요했던 이웃들이 있다면 가양2동 탁구 동호회를 추천해보자.



**모임장소** 가양2동 동사무소 3층 강당

**모임시간** 매일 오후 1시~5시

**회비** 월 10,000원

**가입문의** 회장 윤종각 010-4807-0987

| 우리 이웃들은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 친구

# 친구의 친구는 친구 친구가 힐링(Healin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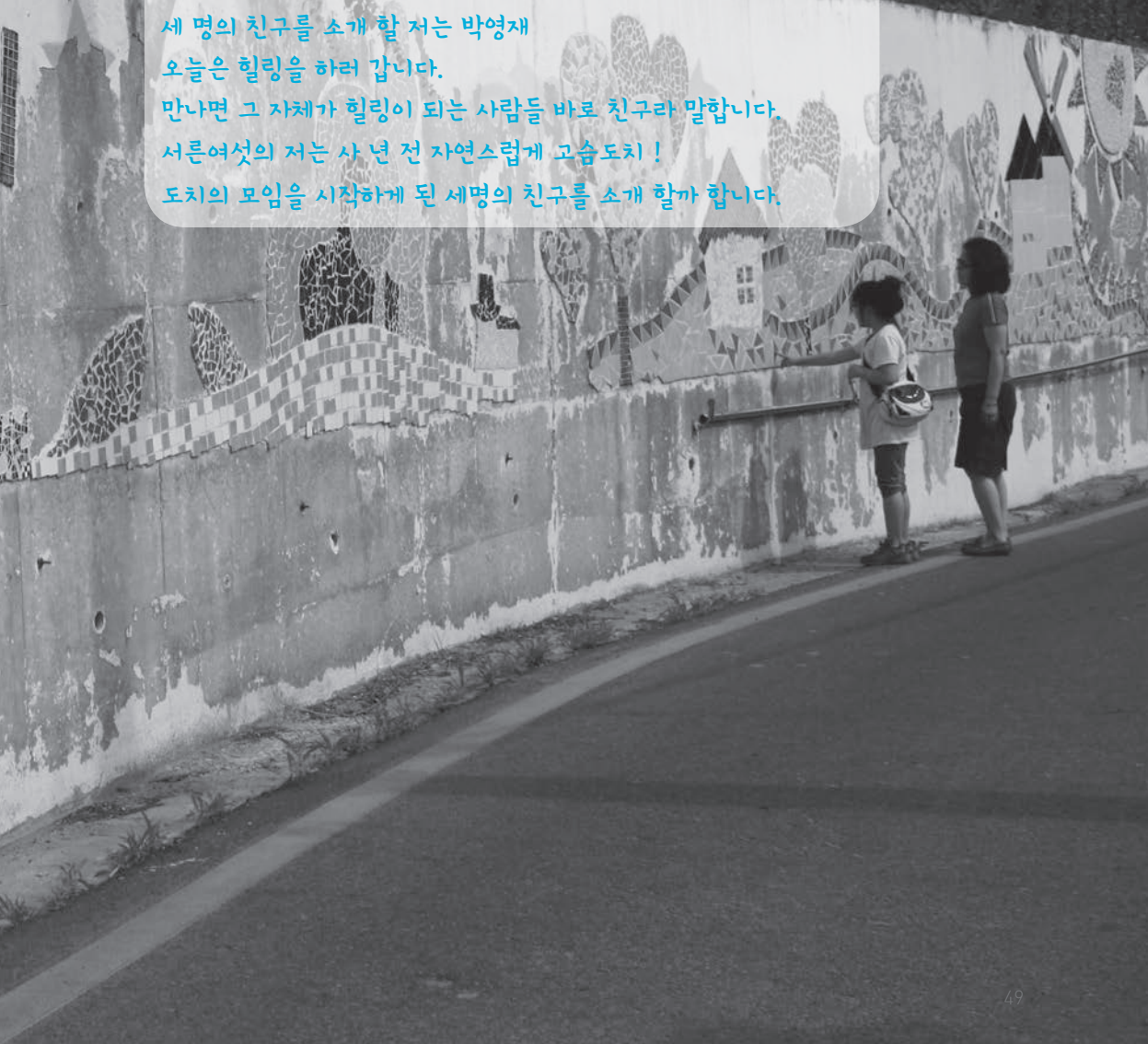
글 · 신신혜 기자



햇빛이 많은 오후입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햇빛에 고개를 들어 웃어 보입니다.  
마음 가득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오후!  
친구들의 수다와 같은 경쾌함을 찾아  
발걸음 재촉합니다.  
저기 친구들이 환한 웃음으로  
반기고 있군요.



세 명의 친구를 소개 할 저는 박영재  
오늘은 힐링을 하러 갑니다.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사람들 바로 친구라 말합니다.  
서른여섯의 저는 사 년 전 자연스럽게 고슴도치!  
도치의 모임을 시작하게 된 세명의 친구를 소개 할까 합니다.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알게 해 준 친구, 황보라



사모라 불려지는,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친구!

나보다 일곱 살이나 아래지만 지금 남편의 소개로 친구가 된 어린 나의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의 따뜻함을 알고 난 뒤 친구가 된 보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늘푸른 청년회 시절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더욱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된 보라.

결혼 후 보라도 아이 엄마가 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친구입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예쁜 보라!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답답함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스티 같은 친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결 여유로움을 갖게 됩니다.



## 만나면 그 자체가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 정성희



오~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성희! 강한 인상의 친구, 청년회에서 알게 된 손재주가  
많은 친구!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오호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성희~

선교원의 선생님이로 재직하면서 청년회에서 알게 된 친  
구랍니다. 세 명의 친구 중 유일하게 나와 서른여섯 동갑  
내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시원한 성격 탓에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친구이기도 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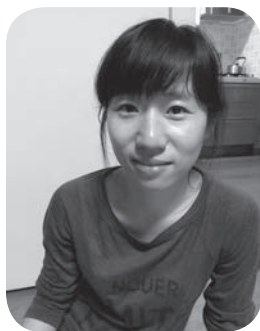
무거운 몸이어서 만나자면 힘들어도 기꺼이 수다에 함께 해 주는 친구.

손재주도 남다르지만 어딜 가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는 친구.

오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함께 자리를 하게 되니 더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정지연



쌍둥이 맘이라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둥이 엄마 지연이.

역시 지연이두 저보다 세 살 아래인 친구입니다.

둥이 엄마가 된 후 대전에 내려와 살다보니 청년시절 함께 한 후배이면서 친구이기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친구가 된 지연.

지연이는 조용하면서 재미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그 속에 따뜻함 전할 줄 아는 친구이기도 하구요.

덕분에 모임을 지연이 집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역시 지연이가 머물고(?)있는 장소에서 모였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으로 잘 차려진 자리에서 시원한 아이스크피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인생에 소중한 친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후 햇살의 부드러움을 타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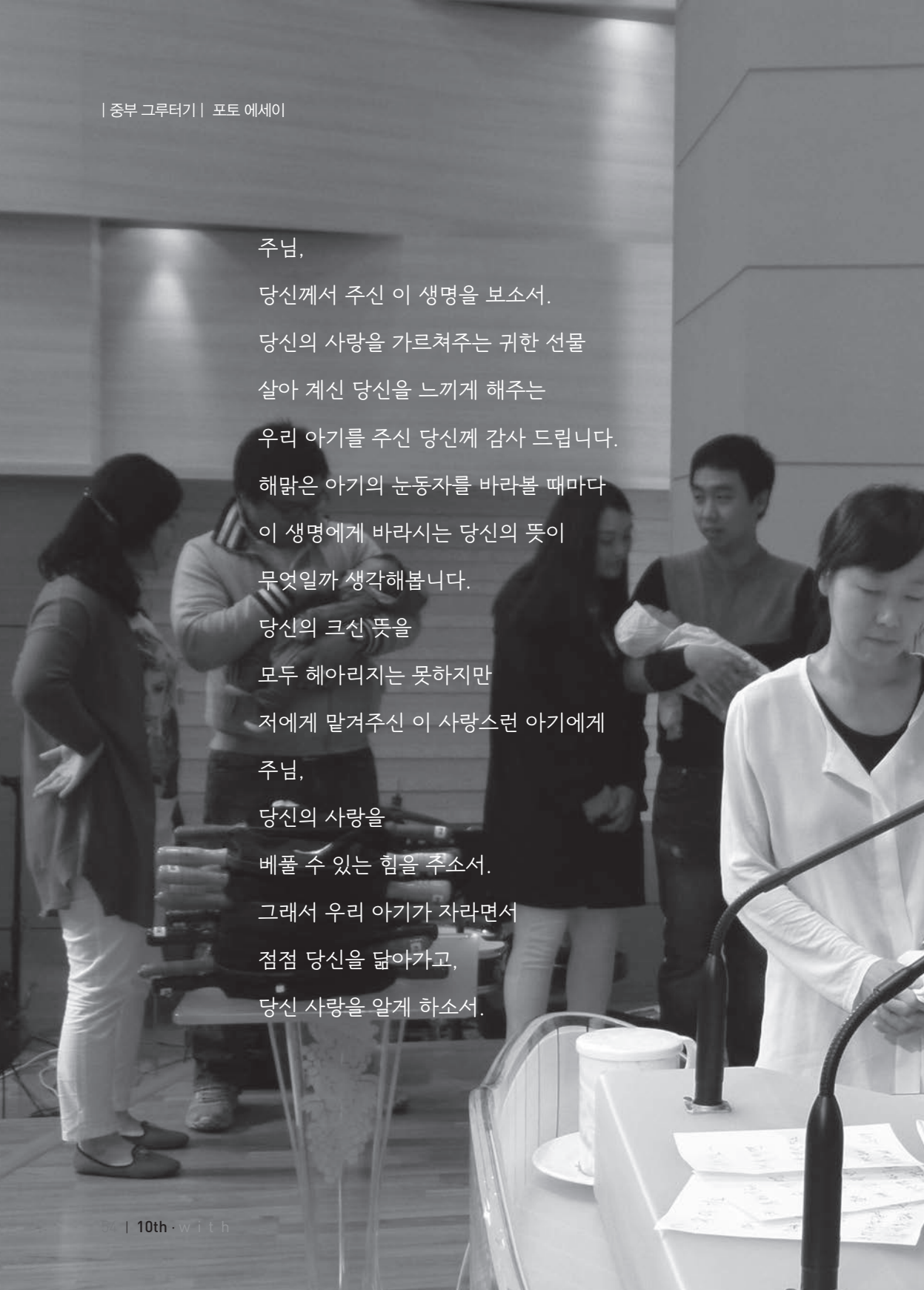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라 아이의 이야기로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자리 잡는 유월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friend's friend is friend !!!!!





주님,  
당신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귀한 선물  
살아 계신 당신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아기를 주신 당신께 감사 드립니다.  
해맑은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 생명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모두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스런 아기에게  
주님,  
당신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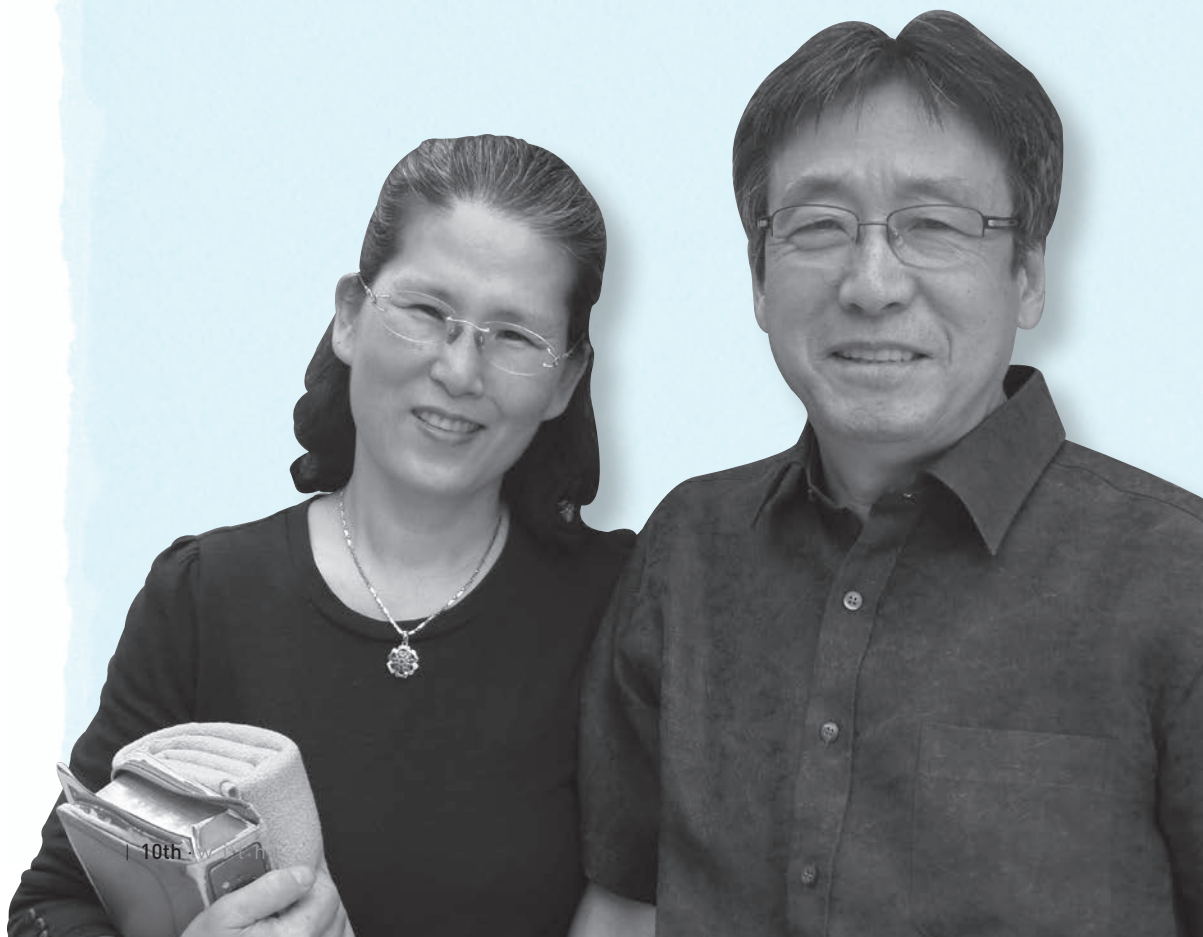




| 중부 그루터기 | 나의 삶 나의 신앙

# 나도, 가정도 살린 신앙 훈련의 놀라운 은혜 구회선·박지숙 집사

글·심재성 기자





우리 교회에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부부 집사님이 있다. 우리 교회 독자들은 아마 이 부부 집사님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이 갈 것이다. 바로 구회선, 박지숙 집사님 부부이다. 이 두 분은 어떻게 늘 그리 다정히 손을 잡고 다니실 수 있을까? 그 사연을 듣기 위해 지난 5월 말 두 분 집사님을 찾았다.

### 고향 - 모태신앙

‘구회선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기자의 질문에 ‘토끼하고 발맞춘 곳이 고향이에요.’라고 대답하신다. 선뜻 알아듣지 못하자 ‘토끼하고 발맞춰 뛰어다닐 만큼 시골이라는 거죠.’라며 박지숙 집사님이 말 씀해주신다. 전북 진안 시골 마을에서 자란 구회선 집사님은 지금도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구 집사님은 모태신앙일수록 신앙 성장이 오히려 늦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그런 축에 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내 집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신다.



## 삶과 신앙 - 전주에서 대전까지

장남인 구 집사님은 가난한 살림에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10대 때부터 양복 일을 배워 일하며 전주에서 동생들을 돌보았다. 외삼촌의 소개로 만난 박지숙 집사님과 1979년 결혼을 하여 이후 서울과 안양을 거쳐 박 집사님의 고향인 대전에 1989년 정착했다. 대전에서는 처음에 세탁소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건강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여러 곳을 이주하며 생활해 왔지만, 언제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 오신 구 집사님은 2002년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직도 받게 되었다. 구 집사님은 그동안 재정부와 중등부 등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으며, 중등부, 남전도회, 안수집사회, 성가대 등에서는 회장으로 섬겨 오셨다.

## 인생의 고비 - 시험과 고난

열심히 생활해온 구 집사님 가정에 고난이 시작된 것은 2004년도이다. 2004년은



아내 박 집사님에게 예기치 않은 건강 이상이 찾아와 세 번의 수술을 해야 했던 해이다. 박 집사님이 건강원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입은 화상은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신다. 그러던 중 옆친 데 덮친 격으로 2005년에는 충남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의 수재였던 하나뿐인 아들에게 힘든 병마가 찾아와 또 한 번 이 가정을 눈물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고난들을 몇 년 사이 한꺼번에 맞닥뜨린 박 집사님과 구 집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리 치시는가?’ 원망도 했다 하신다. 하지만 두 분 집사님은 그 모든 고통과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요, 더 큰 은혜를 끼치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 회복 - 나도 살고 가정도 살다!

구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가정을 살린 것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신앙훈련이었다. 고난과 고통 중에 다시 찾은 우리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신 조상용 담임목사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신앙훈련에 두 집사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사역학교와 행부세, 아버지학교 등에 참여하며 두 분 집사님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과 ‘교육 기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 집사님과 박 집사님은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본을 보여야함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 이후 늘 항상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이 가정에 찾아온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인 것이다.

“아픈 아들 때문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신경조직 하나 세포조직 하나까지 해결해주시는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소서!”

두 분 집사님이 가슴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울림이 그 어떤 기도의 소리보다 깊고 크게 들려왔다.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글 · 김선희사모(심태선 목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지요. 아직은 길게 살지 못한 인생의 길이지만 제 삶 속에 가장 깊게 자리잡은 단 어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셨던 농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워주셔야 한다고 기도하시곤 하셨지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태평양 북마리아나 군도에 위치한 싸이판 섬으로 학업과 선교를 위해 떠날 때도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했던 저를 믿어주시고 7년 간의 시간을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 동안 저를 조선족 선교를 위한 선교도우미로 사용하셨고 중국 조선족들의 복음화에 일조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 혼기가 약간 빛나간 시간에 주님은 제

게 예비한 신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본교회가 멀어 수요일예배만 참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귀히 보시고 타교회에 시무하던 심태선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는 만난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의 적극적인 성격이 우리의 만남에 불을 지폈지요. 주님의 사랑은 짝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디다. 또 다른 인생의 고민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기도로 인내하며 주님이 자녀를 주시도록 기다렸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큰 아들인 진규(초등학교 2학년)를 선물로 주셨지요.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뻐던지 그 기쁨은 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치 구름 위에 내가 둥둥 떠있는 것처럼 흥분되더군요. 그 후에 다시 지선이(유치원, 6세)를 주실 때에도 기다리다 지쳐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니 주님께서 또 자녀를 주시더군요. 셋째 진아(2세)는 저절로 열리는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이 하신다 하시고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중부교회를 예비해 놓으시고 한치의 시간의 미뤄짐도 없이 우리가 중부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남편인 심태선 목사가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박사 시험을 볼 때도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했었습니다. 박사 모집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2013년도 실천신학과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어렵더군요. 우리에게 박사 진학의 기회가 올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었습

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에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박사코스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어 갑니다. 주님은 저보다 앞선 시간을 살아 가신 우리네 어머니들의 신앙처럼 주어진 시간을 조용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자녀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양육하고 남편의 목회와 사역에 내조할 것을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의 바람이 있다면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기간에 제게 주셨던 소명 곧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맡겨 주신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며 주님이 오시기까지 충성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 사랑의 선교바자회



사랑의 선교바자회가 지난 5월 3,4일 양일간 우리 교회 제1주차장에서 진행되었다. 선교바자회는 태국·몽골·싱가폴 지역 선교사 후원과 단기선교팀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바자회에는 우리 교회 남·여전도회 등 여러 부서에서 200여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판매 부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열심히 봉사해주었다. 판매 물품은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과 구매 물품 등을 포함한 의류, 음식, 양념류, 일반 생활용품들로 준비되었다. 각 전도회와 부서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값 싼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여 이날의 바자회를 맞았다. 또한 재활용 의류라든가 건어물 등 매년 빠지지 않는 물품은 물론, 과일과 음료를 포함해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닭튀김과 꼬치 등의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장터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이틀 동안 많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바자회를 찾아주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참여로 이번 사랑의 선교바자회에서는 총 1천여 만원의 선교비가 마련되었다. 모아진 선교비는 올 여름에 파송하는 단기선교팀들과 단기선교팀들이 방문하여 협력 사역을 펼치게 되는 현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2013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 옥천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 대회 장소로 가는 길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전교인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육대회였다.

9시 30분 경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우승기 반납’과 ‘다함께 포크댄스’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다함께 포크댄스’는 전교인이 다함께 포크댄스를 추는 것으로, 전교인이 함께 큰 원을 만들어 파트너를 바꿔가며 포크댄스를 추다 보니 서로 낯설었던 분들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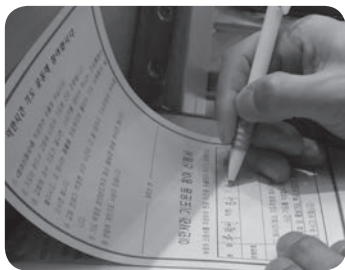
이어 미션수행, 눈썰매릴레이, 한마음릴레이 등의 오전 경기가 진행되었고 이후 즐거운 점심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교구 간 대항을 떠나 친선 도모를 위한 남자축구 경기가 펼쳐져 가브리엘 목사님의 멋진 골을 볼 수도 있었다.

오후 경기는 장애물릴레이, 큰공릴레이, 여자축구, 족구, 풍선탍 쌓기 등 많은 경기가 이어졌고, 대부분의 경기가 전교인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들로 이루어져 함께 호흡하며 함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유치부부터 청장년까지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교역자까지 함께 팀을 이뤄 경기하는 400미터 계주로 각 교구의 응원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을 연출하였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 가운데 최종 우승은 2교구에 돌아갔고, 끝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열띤 응원을 펼친 1교구가 응원상을 차지했다. 함께 손잡고 뛰며 구르며 또 열렬히 응원하며 보낸 각 교구의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행사 준비와 진행에 애쓰신 모든 분들이, 이 날 하루는 정말 모두가 중부가족이란 이름으로 한마음이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 2013 이만 시간 기도 운동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만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이번 운동은, 먼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 다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스티커를 떼어 하나는 개인 기도통장에 붙이고, 또 하나는 제출용 기도카드에 붙여 기도 저축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한 것만 포함하며 교회 전체가 작성한 이만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기도 운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 개인 기도 사상도 계획 중이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중부가족이 다 같이 기도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길 기대한다.

## 2030 젊은부부모임



‘2030젊은부부모임’(회장 강용주 집사)이 매 주일 오후 1시 교회 당회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동안 ‘2030젊은부부모임’은 각 목장별로 목장예배만 드려왔는데 지난 4월부터 이석원 목사님의 인도로 주일 오후 모든 2030목장이 연합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모임 시간 동안 유아부실에서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부부들만의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30젊은부부모임’은 현재 매일 실천 사항(매일 배우자, 자녀와 1회 이상 허깅하기, 축복 기도 해주기)과 주중 실천 사항(가정 예배 실천하기)을 실행하고 있으며, 주일 모임에서는 지난주 실천 과제를 점검하고 그 주의 나눔 주제를 정해 이야기 나누고 또 금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2030젊은부부모임’이 주일 모임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우뚝 서길 기대해본다.



## 2013년 한마음가족찬양제



‘2013년 한마음가족찬양제’가 지난 5월 26일 오후 예배 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김선미 집사와 하우진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목장연합팀과 가족팀 등 총 11개 팀이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지난해 우승 팀이었던 ‘사모목장’은 여전히 아름다운 하모니로 천상의 노래를 들려주셨고, 윤재

룡 장로님 가정 팀은 쌍둥이 손녀들의 재롱과 울동으로 행복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청년목장연합팀은 40여명이 무대에 올라 최대 인원 참가를 자랑했다. 이번 찬양제의 최고상인 금상은 부부가 함께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귀여운 두 딸이 깜찍한 노래와 울동을 펼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김현철 집사님 가정 팀에 돌아갔다. 내년에는 더 많은 목장과 가정이 출전하여 더욱 즐거운 가족찬양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 동대전 CE 찬양제



‘부활감사! 무료 개안수술기금 마련을 위한 제 17회 찬양제’가 지난 4월 27일 저녁 6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동대전노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찬양제는 면려회 부회장인 우리 교회 이정학 집사의 사회로 총 6개 교회의 찬양대가 참

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부교회 드림워십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첫 찬양은 우리 교회 연합찬양대의 몫이었고 이어 목원교회, 동문교회, 주사랑교회, 대동교회, 동부교회 순으로 각 교회의 찬양대가 나와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 무료 개안수술 기금을 마련함은 물론, 여러 교회의 찬양대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조쉬맥도웰 초청 세미나



대전CCC와 대전·충청 학복협이 주최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5월 3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지역 목회자 및 신학생, 청년 및 교회학교 사역자와 교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쉬 맥도웰 박사(국제 CCC 순회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쉬 박사는 ‘인터넷, 포르노 범람의 실상’,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행복한 삶, 건강한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등의 주제로 강연을 인도하였으며, 저녁 시간에는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 제12회 행복축제 참여



대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2회 행복축제’가 지난 5월 30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행복축제’는 매년 대전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래와 춤 등의 공연을 펼치는 ‘대전성시화를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 초청’잔치이다. 우리 교회 청춘대학의 90여명 어르신들도 이번 축제에 참여해 풍물놀이와 무용, 노래 등의 공연과 간증 집회 등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점심 도시락과 자그마한 선물도 제공되어 참여한 어르신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참석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전도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샤론의 향기가 가득한 수연이네



‘샤론의 꽃 예수’ 찬양을 즐겨 부르는 눈망울이 너  
무나 사랑스런 수연이는(6세.유치부) 3교구 마태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이창욱(성도, 이미션(성  
도)님의 자녀이며, 동생 이윤후(3세.유아부.아  
기학교)가 있다. 아빠를 닮아 찬양을 잘하는  
수연이는 유치부에서 찬양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한다. 아

빠 이창욱 성도님은 3년 전 대전 수자원공사를 다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선비마을로 이사 오셨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온  
두 부부는 섬길 교회를 찾다 아내인 이미션 성도님이 문화센터를  
다니며 만난 김동선 집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계기로 대전중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는 찬양을 잘 하여 등록 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  
다 6개월 정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온 후 지금은 주일예배 만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엄마는 활  
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아기학교에서 아들 윤후와 함께 참석하여 이미지 메이커라 불릴 만큼  
열정적이다. 수연이네는 저녁이면 기도와 찬양으로 작지만 감사의 가정예배로 마무리를 한다. 수  
연이네의 가정을 보면 샤론의 향기가 풍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기억하시나요?

2012년 여름애(愛), 사랑애(愛), 빠진애(愛)

주일학교 부서 마다

해외 선교지 마다

국내 선교지 마다

우리는 여름애, 사랑애, 폭 빠졌었지요.


다시 온 2013년 여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애(愛), 빠진애(愛)가 될 것 이냐고?

이런 답은 어떨까요?

여전히 사랑애 빠진 내가, 우리가 되겠다고.

 대전중부교회 042-622-9991 [www.jungbu.or.kr](http://www.jungbu.or.kr)

※ 본지를 읽고 가져가셔도 됩니다.